

##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레쥬프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들어 첫번째 외빈으로 각하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터키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각별한 나라입니다. 비록 8천km 떨어져 있지만, 마치 이웃에 있는 친구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2002 월드컵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4강에 함께 진출한 터키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치른 3~4위전은 양국의 우의와 유대를 전 세계에 과시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반세기 전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혈맹입니다. 터키는 한국전에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연인원 1만 5천명에 가까운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터키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각하,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 문명의 가교로서 인류의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도 중동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U 가입이 이루어지면 동서 통합과 협력의 중심국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하께서는 취임 이후 정치·경제·외교 여러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주화 개혁과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되었던 경제를 회생시켜 고도성장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나는 각하께서 부정부패 일소, 신뢰받는 정부, 정의 구현, 약자를 위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방향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나는 각하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터키 국민의 저력과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총리 각하,

우리 두 나라 관계는 이번 각하의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에서 테러근절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이룬 데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양국 기업인들이 '한·터키 경제협의회'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터키 기업인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만 4만 4천여명의 한국인이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전 국토가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터키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터키와 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고마운 친구, 반가운 친구를 위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에르도안 총리의 건강과 터키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